

# 로보틱스 (Overweight)

Issue Comment

## Overweight

### 젠슨 황의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 로보틱스 산업

#### 젠슨 황의 2차 방한에서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 로보틱스 산업

nVIDIA CEO 젠슨 황이 7개월만에 다시 한국에 방문했다. 25.10 젠슨 황은 경주에서 개최된 APEC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바가 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젠슨 황이 한데 모인 소위 깡부 회동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이후 nVIDIA의 Blackwell GPU 26만개가 삼성, 현대차, LG, SK, 네이버 등 5개 국내 업체에게 공급됨과 동시에 Physical AI 솔루션 공급 확대 내용이 시장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그룹사들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다 보니 시장은 젠슨 황의 일정과 발언에 집중했다.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06.05 성수동 소재 음식점에서 2차 깡부 회동이 이뤄졌는데, 참여 업체는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이다. 이들은 HBM 등 메모리 공급 업체 (SK), nVIDIA GPU 구매 고객 (네이버, LG) 등이고, 관련해 1차 깡부 회동과 크게 다른 시사점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반면 시장은 방한 전후로 관찰되고 있었던 젠슨 황의 한국 로보틱스 산업 관련 발언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로보틱스 산업은 nVIDIA의 고객이자 파트너

젠슨 황의 GTC 타이페이 2026, 그리고 방한 일정에서 관찰되었던 한국 로보틱스 산업 관련한 코멘트는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 (1) 대한민국은 훌륭한 생태계와 뛰어난 기술 및 기업을 보유한 나라임. 로보틱스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과 동시에 nVIDIA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2) 대한민국에 투자할 산업이 많으며, 특히 로보틱스 산업이 차세대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 (06.08 국내 로보틱스 산업 관계자 미팅 일정)

젠슨 황이 반도체 외 특정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이와 같이 강조한 사례가 많지 않다. 또한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요인 탓에 추가로 연결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번 방한 일정에 언급됨과 동시에 국내 대기업 중 로보틱스 관련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있는 LG 및 두산 그룹주에 시장 관심이 쏠렸다.

이처럼 국내 로보틱스 산업이 젠슨 황의 선택을 받은 배경은 현대차그룹의 경우와 유사하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개발에 있어 nVIDIA의 Alpamayo와 여러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Boston Dynamics의 Atlas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도 Jetson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은 nVIDIA의 중요 고객 중 하나이나, 더 나아가 nVIDIA의 핵심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현재 현대차그룹 외 자율주행 개발 의지가 높은 레거시 OEM은 많지 않고, Alpamayo의 경우는 더욱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Xpeng을 비롯한 여러 중국 OEM들은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들을 제외한 레거시 OEM들 또한 nVIDIA가 아닌 Huawei와의 협력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즉 nVIDIA가 자율주행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은 중국을 제외한다면 많지 않고, 자사 솔루션의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대차그룹이 꼭 필요한 것이다. 국내 로보틱스 산업도 마찬가지다. 아직 중국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 nVIDIA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향후 Huawei 등 업체를 통한 국산화가 이뤄질 것이다. 또한 일본과 독일 등 전통적인 로보틱스 산업 강국들의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 의지는 낮아 이들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림1. SK그룹, LG그룹, 네이버 등 주요 업체 CEO와 다시금 회동을 가진 잰슨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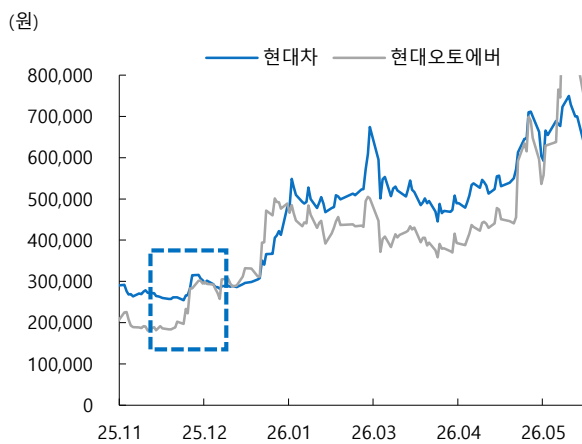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잰슨 황의 1차 방한 당시 주요 협력 내용이었던 GPU 공급

	<b>정부</b>	<b>삼성전자</b>	<b>현대차그룹</b>
GPU 할당 물량	50,000개	50,000개	50,000개
추가 nVIDIA 협력 내용	소버린 AI 구축	Jetson 위탁 생산	SDV~로보틱스 솔루션 협력
	<b>SK그룹</b>	<b>네이버</b>	<b>LG그룹</b>
GPU 할당 물량	50,000개	60,000개	1차 방한에서 배정 X
추가 nVIDIA 협력 내용	HBM 6세대 공급	하이퍼클로버X 및 로보틱스	EXAONE 모델 개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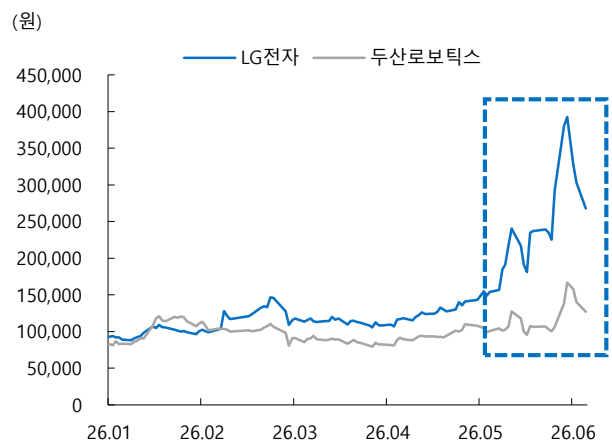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현대차, 현대오트모에버 주가 추이: 25.10 1차 간부 회동 이후 nVIDIA와의 협력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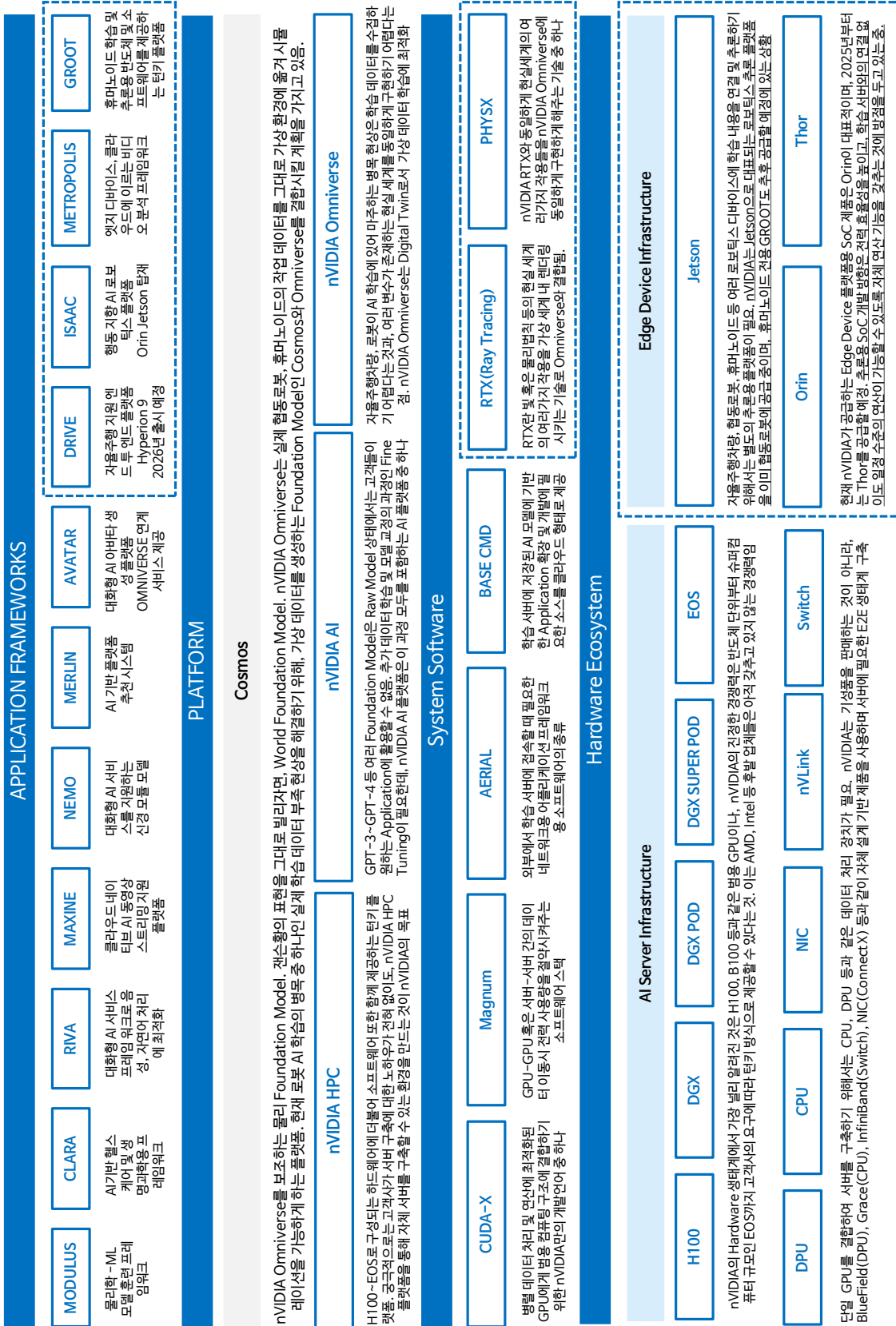
자료: nVIDIA,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LG전자, 두산로보틱스 주가 추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관찰되나 잰슨 황 2차 방한에 있어 가장 큰 수혜를 봄



자료: nVIDIA,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nVIDIA의 제품 스택: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전반적인 리보틱스 산업과 관련된 이미 E2E 수준의 포트폴리오 완성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nVIDIA는 휴머노이드 산업에 특히 관심이 많을 것**

nVIDIA의 로봇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1) 개별 로봇에 탑재되는 컴퓨팅 시스템인 Jetson 플랫폼, 2) Foundation 모델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리고 이와 같은 로봇 솔루션을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등이 존재한다. 이 중 nVIDIA의 관심사는 역시 휴머노이드 시장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존재한다.

첫째, Jetson 플랫폼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nVIDIA의 Jetson 플랫폼이란 차량과 로봇에 탑재되는 일종의 컴퓨팅 시스템이다 (각 제품의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고, 기학습된 주행 및 작업 데이터를 실행).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의 경우 Jetson 플랫폼을 탑재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나, 작업의 자율성을 전제로 개발되는 휴머노이드는 필수적으로 이와 같은 내부 컴퓨팅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재 Tesla를 제외한 모든 휴머노이드 업체들은 nVIDIA Jetson 플랫폼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경우 향후에도 자체 개발 가능성이 낮은 부품 중 하나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개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의 경우 Teaching이라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만 이뤄진다면 사용에 큰 지장은 없다. 반면 휴머노이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작업 및 주변 환경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Foundation Model, 그리고 실제 환경을 가상적으로 구현하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 현재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들은 이미 nVIDIA의 Isaac GROOT (Foundation Model) 및 COSMOS (시뮬레이션 학습용 데이터 생성 플랫폼) 등의 제품을 사용 중이다. 향후 대형 업체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재편된다고 해도, 시장 개화 초기 nVIDIA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를 쉽게 낮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6. nVIDIA의 로보틱스 산업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정리 (회색 음영: 휴머노이드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

nVIDIA 로보틱스 관련 하드웨어 플랫폼	nVIDIA 로보틱스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
(1) 서버 단위의 학습 인프라	(1)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DGX (H100 및 B200 구성 학습용 서버)	Isaac Sim (물리 법칙 기반 시뮬레이터)
(2) 시뮬레이션 인프라	Isaac Lab (강화 학습 플랫폼)
OVX (RTX 구현하는 시뮬레이션 서버)	(2) Foundation Model
(3) Edge Device 플랫폼	Isaac GROOT (VLA Foundation Model)
Jetson Thor (추론용 컴퓨팅 플랫폼)	Cosmos (World Foundation Model)
IGX Thor (산업 현장 외부 통제용 플랫폼)	(3) 개발 및 제어 도구
	GROOT (데이터 파이프라인)
	Isaac (Teleoperation 데이터 수집)
	cuMotion (모션 플래닝 데이터 CUDA 도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 모멘텀으로 보아야 마땅**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잰슨 황의 발언이 국내 로보틱스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고민해보았다. 전술한 것과 같이, 잰슨 황은 nVIDIA의 로보틱스 솔루션 고객을 확보하고 자사 솔루션의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로보틱스 산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는 Jetson 플랫폼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내재화의 가능성이 낮은 휴머노이드 산업에 집중할 것이고, 이에 관련한 수혜 또한 국내 휴머노이드 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내 상장 업체 중 구체적인 nVIDIA 협력 내용이 공개된 업체들은 두산로보틱스, LG전자 정도이다. 단 이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도 향후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nVIDIA 솔루션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시 말해 국내 휴머노이드 업체들은 모두 nVIDIA 솔루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잠재 고객이다. 따라서 잰슨 황의 발언으로부터 출발한 국내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여러 내러티브는 단기 이슈가 아닌 중장기 모멘텀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잭슨 황의 방한 전후로 국내 로보틱스 산업은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였으나, 방한이 임박하자 상당한 규모의 차익 실현 매물이 관찰되고 있다. 그럼에도 nVIDIA 관련 모멘텀 외 1) Boston Dynamics 양산형 Atlas 개발 가속화, 2) Tesla Optimus 양산 임박, 3)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사업 정상화 등과 같이 당사가 제시해온 기존 국내 로보틱스 산업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그림7. 향후 nVIDIA와의 협력 가능성이 특히 높은 국내 로보틱스 업체 정리

잭슨 황의 2차 방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업체	언급은 없었으나 향후 편입 가능성 높은 업체
<p style="text-align: center;"><b>LG전자</b></p> <p>잭슨 황은 LG 그룹과의 협력 부문 세 가지 중 하나로 로보틱스를 꼽음. LG전자는 Jetson Thor 및 Isaac GROOT 등과 같은 휴머노이드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nVIDIA와 함께 레퍼런스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예정</p>	<p style="text-align: center;"><b>레인보우로보틱스</b></p> <p>당초 26.03 공개가 예정된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가 연기되었으나, 26.2H 내 제품 공개 가능성 매우 높음</p> <p>거의 모든 휴머노이드 업체가 nVIDIA 솔루션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로보틱스 또한 향후 nVIDIA 파트너가 될 가능성 높음</p>
<p style="text-align: center;"><b>두산로보틱스</b></p> <p>이미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개발과 배포의 과정에서 nVIDIA의 관련 플랫폼을 활용해옴.</p> <p>더 나아가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도 nVIDIA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금번 방한에서 확인되었고, 이는 2028년이라는 두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개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p style="text-align: center;"><b>로보티즈</b></p> <p>Isaac Sim에 기반해 AI Walker 시뮬레이션 과정이 진행됨을 자사 유튜브에 공개.</p> <p>단순히 액츄에이터 업체를 넘어 완제품 업체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기에 향후 nVIDIA 협력 가능성 높음. 특히 아직까지는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nVIDIA 의존도가 높는데, 중화권 제품 레퍼런스가 특히 뛰어난 로보티즈에게로 낙수효과 관찰 기대됨</p>
	<p style="text-align: center;"><b>현대차그룹 (Boston Dynamics)</b></p> <p>잭슨황이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을 방문해 모빌리티와 Physical AI 부문의 현대차그룹 경쟁력을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개발 과정에서 협력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p> <p>단 이미 Boston Dynamics 개발 과정에 Jetson 등의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됨.</p>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2026년 하반기 국내 로보틱스 산업 국내외 모멘텀 정리 (2026년 상반기 음영 항목은 당사가 전망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은 내용, 단 해당 일정들은 모두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더 많은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

2026년 상반기 국내 로보틱스 증가 및 업황	
<b>국내 모멘텀</b>	<b>하락요인</b>
상승요인	주요 부품 업체의 휴머노이드 매출 발생시점 지연
K-휴머노이드 애플리케이션 관련 과제 구체화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시제품 공개 (26.03)	휴머노이드 정부 지원 사업 진행 속도 더딤
레인보우로보틱스 신사업 및 자체 생산 공장 완공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휴머노이드용 제품 공개
트럼프 행정부 로봇 육성 정책에 따른 수혜	2026년 하반기는 현대차그룹보다 삼성전자가 국내 로보틱스 업황의 이벤트를 제시할 것. 이에 따른 레인보우로보틱스 외 관련 종목 추가 상승세 강할 것. 더하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지원 정책에 따라 유의미한 미주 매출 비중을 보여주는 업체 (우산로보틱스) 등 2025년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체의 재평가 또한 전망.
<b>글로벌 모멘텀</b>	<b>하락요인</b>
상승요인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
Tesla Optimus Gen 3 공개	전통 로보틱스 업체들의 실적 부진세 지속
Unitree Robots의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 상장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전반적인 양산 일정 연기
nVIDIA GTC 2026에서 공개될 로봇 로드맵 (26.03)	Boston Dynamics 양산 세부 스펙 확정
<b>국내 모멘텀</b>	<b>하락요인</b>
상승요인	주요 부품 업체 CAPA 증설 일정 시작
레인보우로보틱스 휴머노이드 공개 및 양산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
국내 협동로봇 업체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휴머노이드 정부 지원 사업 진행 속도 더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휴머노이드용 제품 공개	2026년 하반기는 현대차그룹을 위시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국내 로보틱스 업황의 이벤트를 제시할 것. 시계종단계를 넘어 실제 양산용 제품에 대한 평가가 관찰될 것이고, 이에 따른 공급 포함 유무도 결정될 것. 또한 로보틱스 등 주요 소부장 업체의 신규 공장 증설이 시작됨에 따라 미래 실적의 현재 가치화를 논하는 시장 의견도 관찰될 전망.
<b>글로벌 모멘텀</b>	<b>하락요인</b>
상승요인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성장주 수급 이탈
Tesla Optimus Gen 3 공개 및 양산 시작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클로립 시장 진출
Figure AI BotQ (생신공장) 내 제품 양산 돌입	일본 소부장 업체의 휴머노이드 시장 진입
Boston Dynamics 스펙 확정, 상장 논의 구체화	Unitree Robotics 상장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p>종목추천 투자등급</p> <p>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p> <p>·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p> <p>·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p> <p>·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p>	<p>산업추천 투자등급</p> <p>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p> <p>· Overweight(비중확대)</p> <p>· Neutral(중립)</p> <p>· Underweight(비중축소)</p>
--	---

**[투자등급 비율 2026-03-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8.2%	11.8%	-